

수비 몰고 다니는 손흥민... 황의조와도 환상케미

카타르와 평가전 2-1 승리
72년만에 A매치 500승
황희찬, 16초만에 골
광주 FC 엄원상 국가대표 데뷔

벤투호가 출범 이후 첫 패배를 안겼던 '악연'의 카타르를 상대로 1년 10개월 만에 설욕에 성공하며 한국 축구의 A매치 통산 500승 금자탑을 쌓았다.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한국은 17일(한국시간) 오스트리아 마리아 엔처스도르프의 BSFZ 아레나에서 치러진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57위 카타르와 평가전에서 황희찬(라이프치히)과 황의조(보르도)의 연속골로 2-1 승리를 거뒀다. 이날 승리로 1948년 런던 올림픽 1차전에서 멕시코를 5-3으로 제압하며 A매치 첫 승리를 따낸 한국 축구는 72년 만에 통산 500승(228무 201패)을 달성했다. 더불어 카타르와 만나 최근 2연패의 수모를 당했던 한국 축구는 2016년 10월 6일 러시아 월드컵 최종예선에서 카타르를 3-2로 꺾은 이후 4년 만에 승리를 맞았고, 역대 전적에서는 6승 2무 3패로 우세를 이어갔다. 오스트리아 원정에 나선 벤투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6명이나 양성 판정을 받는 어려운 상황에서 두 차례 평가전을 치르며 1승 1패(멕시코전 2-3패·카타르전 2-1승)의 성적표를 거뒀다. 벤투 감독은 황의조를 원톱 스트라이커로 내세우고 좌우 날개에 손흥민(토트넘)과 황희찬을 배치한 4-3-3 전술로 카타르를 상대했다. 2선 공격진은 남태희(알사드)와 이재성(홀슈타인 킬)이 나섰고, 정우영(알사드)이 수비형 미드필더를 맡았다. 좌우 풀백에 윤종규(서울)와 김태환(울산)이 출격하고, 중앙 수비는 권경원(상주)과 원두재(울산)가 담당했다. 골키퍼는 구성운(대구)이 멕시코 전부터 2경기 연속 맡았다. 한국은 16초 만에 골맛을 봤다. 한국 축구의 A매치 역대 최단 시간 득점이었다. 왼쪽 중원에서 손흥민이 달려들며 압박을 가하자 카타르의 수비수 타렉 살만이 후방으로 백패스를 했다. 볼을 이어받은 중앙 수비수 부알렘 쿠키가 볼을 더듬자 황의조가 빼앗아 골지역으로 패스했고, 황희찬은 텅 빈 골대에 오른발로 선제골을 쏘았다. 이른 득점에 성공했지만 실점 역시 빨랐다.



“인기남은 피곤해” 손흥민이 지난 17일(한국 시간) 오스트리아 마리아 엔처스도르프 BSFZ 아레나에서 열린 카타르와 평가전에서 카타르 수비수들을 제치고 드리블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격에 나선 카타르는 후반 10분 후방에서 타렉 살만이 투입한 침투패스를 알모에즈 알리가 한국의 수비 뒷공간으로 빠르게 침투한 뒤 페널티지역 오른쪽에서 강력한 오른발 슈트로 동점골을 쏘았다. 전반 28분 황의조의 오른발 중거리 슈트로 반격

을 시작한 한국은 마침내 전반 36분 왼쪽 측면에서 이재성의 침투 패스를 손흥민이 잡아 골지역 왼쪽에서 망블 크로스를 내줬고, 쇠도하던 황의조가 골 지역 왼쪽에서 오른발로 득점을 올렸다. 전반을 2-1로 마친 벤투호는 후반 시작과 함께

골키퍼를 이창근(상주)으로 교체해 A매치 데뷔 기회를 줬다. 벤투 감독은 후반 18분 이재성 대신 손준호(전북), 김태환 대신 이주용(전북)을 투입하며 전술 변화를 시도했다. 후반 30분에는 황희찬과 남태희를 빼고 엄원상(광주)과 이강인(발렌시

아)을 내보내며 공격 라인에도 변화를 줬다. 엄원상은 A매치 데뷔전을 치렀다. 대표팀은 후반 43분 황의조를 빼고 주세종을 투입한 뒤 손흥민을 최전방 공격수로 올리며 막판 공세를 펼쳤고, 2-1 승리로 경기를 마무리했다. /연합뉴스

류지혁 “몸 상태 100% ... 내년엔 전 경기 뛰고 싶다”

KIA 마무리 캠프 참가
“내야서 확실한 내 자리 만들 것”
“내 탓이오”를 말한 류지혁이 ‘내야 한자리’를 예약했다. KIA 타이거즈의 2020시즌에는 부상의 그림자가 길었다. 특히 내야의 줄부상은 치명적이었다. “강렬한 5월”을 선물했던 이적생 류지혁도 내야 부상병 중 한 명이었다. 류지혁은 지난 6월 7일 투수 홍건희와 트레이드를 통해 KIA 유니폼을 입었다. KIA의 고인인 3루 자리에서 특독히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빨간 유니폼을 입고 그라운드 선 날은 5일에 불과했다. 두산 선수로 마지막 경기였던 6월 7일 KIA전에서 종아리에 공을 맞았던 류지혁은 숨을 고른 뒤, 6월 10일 KT 원정에서 첫선을 보였다. 3루수 겸 7번 타자로 선발 출장한 류지혁은 KIA 데뷔전에서 안타는 기록하지 못했지만, 득점과 타점을 하나씩 올렸다. 류지혁은 다음 날 경기에서는 3안타를 몰아치면서 존재감을 과시했다. 좋은 수비까지 선보이면서 고민 많던 KIA 내야에 새로운 활력소가 되는 것 같았지만 류지혁의 시간은 짧았다. 6월 14일 SK 원정에서 9회초 내야안타로 출루했던 류지혁은 주루 도중 햄스트링 부상을 당해 그라운드에서 쓰러졌다. 8월 9일 퓨처스리그 경기를 통해 복귀를 위한 시동을 걸었지만 이날 류지혁은 다시 부상병이 됐고, 올 시즌은 부상으로 끝이 났다. 두 차례 부상으로 주저앉았던 류지혁이 마무리캠프를 통해서 야심 차게 새로운 시즌을 그리고 있다. “몸 상태는 100%”라고 이야기한 류지혁은 “내 탓



이다”며 아쉬운 2020 시즌을 돌아봤다. 류지혁은 “허벅지 부상은 처음인데 내 잘못이다. 처음부터 판단을 잘해서 뛰었으면 됐다”며 “멈췄다가 뛰려고 하니 갑자기 힘을 주면서 부상이 왔다”고 말했다. 두 번째 부상도 자신의 책임을 이야기했다. 류지혁은 “내가 욕심을 부렸다. 빨리해야 한다는 생각에 욕심을 부렸는데 그게 실수였다. 너무 욕심

부려서 화를 입었다”고 말했다. 쟁쟁한 두산 내야를 벗어나 새로운 기회를 얻으면서 간절함이 컸다. 그만큼 욕심도 났다. 돌아보면 아쉬운 순간이지만 KIA 유니폼을 입고 된 5일은 류지혁에게는 특별한 순간으로 남아있다. 류지혁은 “주전으로 뛴 5경기가 좋았다. 두산에서 못 느끼본 기분이었다. 두산에서 나를 보는 관점과 기아에서 보는 관점이 달랐다”고 이야기했다. “주전”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새로운 팀에 온 류지혁은 자신 있게 내년 시즌을 말한다. 류지혁은 “나 있으면 3루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 자리라는 생각으로 KIA에 왔다. 3루수든 유격수든 솔직히 수비 위치는 상관없다. 두산에서 여기저기 많이 나갔지만 KIA에서는 한 군데만 하고 싶다”고 확실한 주전을 목표로 이야기했다. 원정에서만 5경기를 치른 뒤 재할군이 됐던 류지혁에게 챔피언스필드는 아직 낯선 곳이다. 하지만 제 2의 인생이 빛날 자신의 무대다. 류지혁은 “원정 경기만 하다가 부상을 당했다. 마무리캠프를 하면서 처음 챔피언스필드에 왔다(웃음)”며 “이곳에 친한 사람도 많고 잘 지내고 있다. 두산에서 막내였는데 여기오니까 형, 형 하는 게 다르다”고 웃었다. 부상으로 관망자 입장에서 KIA의 2020 시즌을 지켜본 류지혁은 “희망”을 이야기했다. 그는 “TV로 중계를 보면서 우리 팀 선수들 전력이 나쁜 전력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어린 선수들 많고 아무래도 경험이 부족하니까 체력관리 이런 부분에서 부족했을 것이다. 앞으로 우리 팀 성적이 점점 더 좋아질 것 같다. 경기를 보면서 희망을 봤다”며 “내년에 개인적인 목표는 전 경기 출장이다. 그 말은 부상 안 당하고 싶다는 것이다. 준비 잘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글·사진·김여을 기자 wool@kwangju.co.kr

두 수상자 ‘극과 극’ 마스크 행보

‘KS 1차전 MVP’ NC 알테어 “숨막혀” 인터뷰 거부
‘최동원상’ 두산 알칸타라, 직접 시상식 참가하기로
한국시리즈를 치르는 NC 다이노스와 두산 베어스 외국인 선수들의 엇갈린 행보가 화제다. NC 다이노스는 지난 17일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두산 베어스와의 한국시리즈 1차전에서 5-3로 이기며, 창단 첫 한국시리즈 승리를 장식했다. 역사적인 날이었지만 NC는 이기고도 ‘마스크 소동’에 웃지 못했다. 이날 결승 스리런을 장식한 알테어가 논란의 주인공이었다. 알테어는 1차전 MVP로 선정됐지만, 시상식과 공식 인터뷰에 불참했다. ‘호흡곤란’을 이유로 알테어가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면서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서 시상식과 인터뷰가 진행되지 못한 것이다. 사전 행사에서도 알테어 홀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그라운드에 도열한 모습이 포착돼 ‘마스크’가 한국시리즈 키워드가 됐다. 코로나19 재확산세로 19일부터 서울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된다. 이에 맞춰 한국시리즈의 3차전 입장 관중도 50%에서 30%로 줄어드는 등 비상 상황이다. 알테어가 18일 뒤늦게 구단을 통해 사과의 뜻을 전했지만 헤프닝은 논란이 됐다. 알테어에게 3점포를 얻어맞아 패전 투수가 됐던 두산 알칸타라도 화제의 인물이 됐다. 알칸타라는 경기가 없는 19일 특별한 결음을 한다. 이날 오후 2시 KBO회관에서는 ‘제7회 부산은행 최동원상’ 시상식이 열린다. 시상식의 주인공이 알칸타라다. 정규시즌 31경기에서 198.2이닝을 책임진 알칸



타라는 20승 2패, 평균자책 2.54, 182탈삼진을 기록하며 최동원상 수상자가 됐다. “레전드 투수 최동원을 기리는 ‘최동원상’ 수상자가 돼 무척 영광이다. 내게 큰 힘이 돼준 팀과 동료, 코칭스태프, 무엇보다 가족에게 감사드린다”며 수상 소감을 밝혔던 알칸타라는 최동원상과 KBO리그를 존중하는 의미로 직접 시상식에 참가하기로 해 눈길을 끌었다. MVP와 패전투수로 희비가 엇갈린 알테어와 알칸타라. 그라운드 밖에서의 승자는 알칸타라가 됐다. 한편 KBO는 18일 알테어 등 NC 소속 4명의 선수에게 마스크 착용 의무 규정 위반에 따른 벌금 20만원의 징계를 내렸다. KBO는 “정규시즌 중 1차 경고를 받았던 선수들이 17일 경기에서도 마스크 미착용 등 위반을 한 게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김여을 기자 wool@